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FSA, 투자회사의 상품 판매 수수료 지급 금지 추진

- 영국 금융감독청(FSA: Financial Services Authority)은 6월 25일 독립 재무설계사 (IFA: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)가 연금·생명보험·투자 상품 등을 판매하고 상품 공급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금지를 2012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힘.
- 금번 조치의 목적은 수수료지급을 통해 설계사의 상품 판매 동기를 유발해온 그동안의 관행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, 상품 공급자로부터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금지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음.
 - 금번 조치로 상품공급자가 판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은 금지되며, 판매자가 ‘수수료 자동지급 상품’을 추천하는 것도 금지될 예정임.
 - 대신, 투자자는 추천 비용에 대해 정보를 듣고, 설계자문 비용을 협상할 수 있으며, 지급방식도 선택할 수 있음.
- 상품공급자가 생명보험상품, 주택담보대출상품, 개인연금 상품, 주식시장 연계 채권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과거 20년 동안 수수료 금지가 지적되어 옴.
- 미국에서도 뮤추얼펀드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불안전판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지급과 수수료자동지급 상품 추천 금지를 새로운 감독규정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임.
 - 소비자단체는 이와 같은 일괄적인 수수료지급 금지는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일임을 밝혀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.
- FSA는 수수료체계 금지로 전체 독립 재무설계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0명이 이직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제반 사회적·경제적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.
- 재무설계사 협회는 금번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제반 변경비용으로 2억1천만 파운드의 비용(설계사 일인당 6천 파운드)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.
 - 컨설팅 업체들은 금번의 조치로 재무설계 제공 업계의 20%~50%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함.
 - 독립 재무설계사 35,000명 중 80%가 수수료체계에 의해 재무설계 자문을 실시해 왔고, 일사 이상 전속 설계사인 50,000명도 수수료체계에 의해 재무설계 자문을 실시해 온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클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 6/26)